

부산민주공원

2008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 발전과 연대를 위한 부산 국제심포지엄



해외동포 민족문화와 교육발전, 연대를 모색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2008 부산 국제심포지엄이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해외동포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주최로 열린다. 이달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 동안 민주공원과 부산 시네마테크에서 펼쳐지는 2008 부산 국제심포지엄은 민족문화 교육 분야의 전문 연구자와 교사, 한국·해외 NGO활동가와 동포들이 참가하여 문화행사, 학술 세미나, 워크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는 해외동포 관련 영화상영과 감독과의 대화, 해외동포 사회의 우리말 교육 사례와 NGO의 역할, 4·24한신대투쟁 60년 기념 연극 공연, 원작자와의 대화, 해외동포 관련 한국과 동북아 3개국 활동가 워크숍 등이다.

현대음악으로 현대사 읽기 ‘귀를 열어라! 현대음악 산책’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은 18~19세기의 서양음악을 주로 다루고 있고,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현대음악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대음악 교육은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음악의 현상을 이해하고 창의력, 사고력, 비판력을 길러주며, 전통적인 음악관을 허물어 폭넓은 음향세계로 미학적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공원과 부산문화예술교육협의회,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이 함께 ‘현대음악을 통해 현대사 읽기’라는 주제로 현대음악 강좌를 연다. 음악교사를 위한 워크숍 ‘교사를 위한 현대음악 통합교육’, 일반 시민을 위한 ‘귀를 열어라! 현대음악 산책’ 그리고 예비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을 위한 교양강좌’ 등 다양한 강좌가 이달 10일(화)부터 25일(화)까지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강좌는 현대음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곡가의 생애, 음악의 역사, 작품 내용과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미학적 접근과 예술사조에 대한 이해를 연계시켜 쉽고 재미있게 현대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재)5·18 기념재단

2008 5·18문학작품 소설·시 당선작, 동화 가작 발표

5·18기념재단과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이 공모한 '2008년 5·18문학작품 공모'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소설부문 당선작은 안재근의 작품 '아만적인, 너무나도 아만적인'이다. 심사위원들은 21세기적 눈높이를 가지고 현 사회의 어려운 주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문학적 인식이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시부문 당선작은 하기정의 작품 '지구가 둥근 이유'이다. 동화부문은 가작 2편을 냈다. 장지혜의 작품 '아빠의 선물'과 임윤희의 작품 '할머니의 분홍원피스'은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작가들의 역량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앞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가작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2008년 5·18문학작품 공모 수상작은 계간 「문학들」의 2008년 겨울호 별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 담 당 : 5·18기념재단 교류지원팀 정 린(062-456-0516)

11월 열사 추모일

이름	추모일	장소
임용준	81.11.2	
김성애	87.11.3	인천 부평 공원묘지
김선호	92.11.3	부산 팔송시립공원묘지
권재혁	69.11.4	
이문규	69.11.4	
임희진	92.11.4	
진성일	86.11.5	부산 경성대학교 교정 추모비
이문철	88.11.6	
양용찬	91.11.7	제주 서귀포 신례리 선산
정순철	04.11.7	국립·5.18묘역
최응현	90.11.8	경기 마석모란공원
강은기	02.11.9	경기 마석모란공원
한상용	93.11.10	광주망월묘역
박문곤	96.11.10	경남 고성군 상리 이화공원묘역
정용품	05.11.11	
전태일	70.11.13	경기 마석모란공원
심오석	76.11.14	
배중손	88.11.14	
이동현	01.11.14	
이성희	99.11.15	
조용술	04.11.15	경기 마석모란공원
황정하	83.11.16	
권중희	07.11.16	경기 마석모란공원
이해남	03.11.17	충남 천안 풍산공원
오추욱	05.11.17	
제중철	03.11.20	경기 마석모란공원
최인정	91.11.21	
이재문	81.11.22	인천 서구 백석 천주교묘지
천덕명	02.11.22	경기 마석모란공원
전용철	05.11.24	
윤상수	69.11.28	
이덕인	95.11.28	경기 마석모란공원
박종만	84.11.30	경기 일산 기독교족묘지
임태남	89.11.30	

* 추모제 관련 문의 : 기념사업팀 조규연 02-3709-7613

독자마당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도 좋습니다. 원고가 채택 되는 분께는 사업회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희망세상』이 되겠습니다.

퀴즈

1.

‘최초의 사회과학 서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곳은 책을 파는 서점일뿐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건국대 후문에 있는 이 서점의 이름은?

- ① 건대서점 ② 소나무서점 ③ 하늘서점 ④ 인서점

2.

1970년 11월 22살의 한 청년이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숨을 거뒀다. 짧은 생애지만 영화로도 만들어져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노동자, 그의 이름은?

- ① 전태일 ② 김은구 ③ 강만호 ④ 안영일

3.

문재린 목사, 문익환 목사, 이해동 목사 그리고 현재 유원규 목사까지 이 교회의 역사는 한국 개신교의 사회 참여 역사를 살필 때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교회의 이름은?

- ① 미아리교회 ② 달빛교회 ③ 한빛교회 ④ 별빛교회

4.

30년 가까이 소외된 자와 노동자들을 위해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노동가수 박준 씨는 <장애 해방가>, <노동자 인권 연대투쟁가> 등의 노래를 만들어 음반을 내기도 했다. 지금도 매주 월요일 이곳에 가면 그를 볼 수 있다. 이곳은 어디인가?

- ① 청계천 ② 종로 조계사 ③ 명동성당 ④ 시청 광장

보내실 곳

정답을 적어 11월 21일(금)까지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사업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hope@kdemo.or.kr 『희망세상』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고 당첨자는 2008년 12월호 『희망세상』에 발표합니다.

10월호 정답

1.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2. 홀로코스트기념관
3. 윤영규
4. 버마

10월호 퀴즈 정답자

강금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서백근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전화순 충남 계룡시 두마면